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6일 수요일 (음 2월 29일) 제15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내 대부분 선거구 초접전 '불꽃 경합'

전주 병 등 3곳 '전북 대첩' 승부처

전주 병 후보들, 지지율 '예측불허'
정동영 후보, 갈수록 민심 파고들어

전주 갑, 김윤덕 후보가 앞서나
김광수 후보가 '오차범위 추격'

완주진무장, 안호영·임정엽 '접전'

전주 을 등 4개 지역구도 '박빙'

전주 을, 최형재·장세환 경쟁 '치열'
익산 갑, 이춘석·이한수 '격돌'
김제부안, 김춘진·김종회 '맞불'
남임순, 박희승·강동원 '혼전'

정권교체 희망나무 심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5일 식목일을 맞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연화마을 입구 노상공원에서 총선승리, 정권교체 희망나무 심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4월 총선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일부 선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구가 초접전 또는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 갑과 전주 병, 완무진장 등 3곳은 양당간 '전북 대첩'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주 을과 익산 갑, 부안김제, 임순남 등 4개 지역은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거나 양당이 서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이다.

야권 텃밭인 전북에서 양당이 스스로 주장하는 '절대 우세' 지역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오는 13일, 총선 일에 투표함을 열어볼 때까지는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선 전국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르는 전주병은 더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고나면 순서가 바뀔 정도로 예측불허인 곳이다.

이 선거구는 김 후보의 '정통야당의 일 잘하는 일꾼'이라는 논리와 정 후보의 '친노패권주의 청산'이라는 선거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지역민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전북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전주 갑은 더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를 꾸준히 앞서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지지자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

탄탄한 조직력을 뽐내는 김윤덕 후보와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도의원과 도의장 등 18년 간 지역정치를 해온 김광수 후보의 지명도가 용쟁호투를 보는 듯하다.

완진무장 선거구는 더민주당 안호영 후보와 로컬푸드로 대박을 터뜨린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간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안 후보는 완진무장을 복지와 민생 지역으로 이끌겠다는 공약을 펼치고 있으며 임 후보는 로컬푸드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선거가 종반전으로 들어가면서 지역 판세가 갈수록 혼전인 곳도 관심거리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후보 대결구도인 타지역과 달리 전주 을은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더민주당 최형재 후보와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와 초접전을 펼치면서 야권이 절대 우세 지역인 전북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15대 총선에서 강현욱 전 의원 신한국당(새누리당 전신) 후보에 이어 20년 만에 전북 정치사를 새롭게 쓰게 된다.

익산 갑은 3선을 꿈꾸고 있는 현 국회의원과 재선 시장이 격돌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더민주 이춘석 후보는 '도심재생 사업'을 위해 3선 필요성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는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내세우며 공략에 나섰다.

양당 중앙당 지도부가 첫 선거지원유세 지역으로 꼽은 김제부안은 더민주 김춘진 후보와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중이다.

김춘진 후보는 '도시보다 잘 사는 김제·부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후보자 토론회 불참을 선언한 김종회 후보는 지역민들의 불만을 얻고 있어 향후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무려 8명의 후보가 난립한 남원·임실·순창에서는 더민주를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지역구 현역의원인 강동원 후보와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 더민주 박희승 후보간 접전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변화하기 위해선 항상 깨어 있어야"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위기의 대학…' 발간

전 국립대학교 총장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과 열정, 대학 경영 노하우가 담긴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의 고뇌와 처방 등이 고스란히 책에 담겨졌다.

전북대 15·16대 총장을 지낸 서거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위기의 대학, 길을 묻다'를 발간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인생의 책으로 삼는 서 교수는 변화하기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서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인구 수도권 집중·잘못된 교육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대학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을 이 책을 통해 제시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원칙과 상식의 틀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즉 '교수는 교수답게, 직원은 직원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제자리를 찾기만 해도 재도약의 동력은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 서 교수는 총장 시절 학생들의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을 혁신하고, 취업교육을 강화시켜 잘 가르치는 대학의 면모를 갖추었다.

또 교수들의 승진요건과 재임용 요건을 대폭 강화해 '국립대 교수는 철밥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이 책은 ▲일은 막중하고 갈 길은 멀다 ▲대학발전의 주춧돌을 놓다 ▲대학을 혁신하다 ▲발로 듣고 가슴으로 말하다 ▲한국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여섯가지 제언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서거석 교수는 "대학을 살리기위해 혼신의 힘을 쏟은 8년(총장 시절)간의 기록이다"면서 "대학 총장과 교수, 우리나라와 대학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나침반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4.13 총선 D-7 Choose Your Future 당신의 한표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장애인복지 일등 도시 만든다

전주시,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추진

전주시가 장애인들도 마음껏 일하며 웃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 일등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바뀌는 첫 번째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선채용제 시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우선채용제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32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 산하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우선채용제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시는 장애인 우선채용제도를 통해 지난 3월말 현재 행정도우미·복지관 업무수행·맞춤형 일자리 등 총 2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지원센터와 '꿈앤카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도서관 사서보조 등 시 산하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권고하고, 다양한 창업형 일자리 발굴 및 지원대책을 검토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과 연계한 우선구매 촉진방안을 마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수혜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전원이 장애인들의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을 통해 알아내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체험에 나서고 있다.

7일과 12일에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각각 휠체어를 이용해 저상버스, 택시, 이지콜 이용을 직접 체험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체험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